

## 혼돈과 질서

원 응 순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필**자가 대학강단에 선 지도 어언 30여 년, 회갑을 맞아 제자와 동료 교수들로부터 회갑기념논문집을 증정받게 되었다. 참으로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무엇이며, 또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지금까지 필자의 마음을 괴롭혀 온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일까라는 ‘인간 존재론’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 그의 나이 60 후반에 쓴 작품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Man*』이었다. 이 작품은 해학과 기지와 유머가 넘치는 낙관주의 작가가 쓴 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인간 불신의 염세주의적인 성격이 농후하게 채색된 글이다. 이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인간의 양면성인 것이다. 아니, 이 양면성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참모습이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에서 인간의 양면성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인간은 얼마나 이상한 동물인가! 얼마나 고귀한가! 도대체 어떤 괴물이며, 혼란이며, 천재란 말인가! 또 만물의 재판관이며, 지상의 연약한 벌레이며, 진리의 보고이며, 불확신과 실수의 나락이며, 우주의 오만과 쓰레기란 말인가!”

일찍이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참모습에 회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다. “내가 가장 세련되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속인들이 말하듯이 꼭 예정된 것처럼 추하고 속된 일들이 느껴지고 행해지도록 어찌서 발생하는 것일까?" 그는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한 인간이 '코스모스'(질서와 조화)의 이상으로 출발해서 '카오스'(절망과 혼돈)로 끝맺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영혼상으로 볼 때 '카오스'적인 절망을 지닌 한 인간이 '코스모스'적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무죄한 젊은 시절의 이상향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 인간이 이성적이며 선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선설에 대한 깊은 회의를 보여 주고 있다. 계속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의 '미차'의 입을 통하여 천사들에게는 신의 뜻과 은총을 베풀어 주지만 벌레 같은 인간에게는 '관능적 욕망'만을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차'는 천사와 같은 동생 '알료샤'의 손을 잡고 울면서, "나는 벌레야, 이 말은 특별히 나에게 적절한 말일거야. 우리 카라마조프가의 사람들은 그런 벌레들이지. 네가 비록 천사라 해도 그 벌레가 역시 네 살 속에 살아서 너의 혈관 속에서 언젠가 태풍을 일으킬거야."라며 절규한다.

다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타락과 사악함에 대한 문제로 돌아간다. "물론, 모든 인간 속에 악마가 숨어있다. 분노의 악마, 괴로워하는 희생자의 외침 소리에 도취하는 악마, 구속을 모르는

무법의 악마, 죄악을 쫓는 질병의 악마가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폭발할 듯한 활화산 같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들은 야수 같은 잔인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야수에 대한 모욕이며 부당한 처사이다. 동물이나 야수에게는 인간처럼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잔인성은 없다. 호랑이나 사자가 사람을 물고 찢어 먹기는 해도 인간들의 귀에 못을 치박으면서 고문할 줄은 모른다."고 카라마조프 형제의 입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작가 R.L. 스티븐슨은 이같은 인간의 양면성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의 용모와 성격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묘약을 발견한다. 그가 이 기묘한 약을 먹음으로써 선하고 존경스런 성품의 '지킬' 박사는 사악하고 타락한 '하이드'씨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 신기한 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약은 인간의 이중성격을 복합시킬 수 있고, 또한 분리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선악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가 이 약을 먹고 나서 약의 효력이 몸 속에 퍼져 나갈 때 '지킬' 박사의 마음 속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의 감각 속에는 무엇인가 이상야릇한 것, 믿을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것, 또한 고상함에 비추어볼 때 매우 달콤한 것이 있다. 나의 육체상의 젊음과 행복과 산뜻한 기분을 느낀다. 그렇지만 마음 속 한 구석에서는 어지러운 혼돈과 환상 속에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무질서한 감각의

흐름, 세속적 의무의 해탈, 인식하기는 힘들지만 도덕적인 영혼의 해방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 이 새로운 삶을 인식했던 그 순간부터 십 배 이상이나 더욱 자신이 잔인해졌으며, 나의 원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생의 희열은 포도주처럼 나를 열광시켰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킬' 박사는 '하이드'씨의 행동에 경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정상적인 인물이지만, '하이드'씨의 가면 속에서는 신성모독적이며 가공할 만한 범죄를 행한다. 두 달 동안 그는 그 약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으며, '지킬' 박사는 인간은 진실로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인간의 완전한, 원시적 이중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도덕적인 면과 나 자신의 경우를 통해서이다. 나는 나의 의식 속에서 서로 필적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을 보았으며, 비록 내가 한 편에만 속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이 양면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일찍부터 나의 과학적 발견이 이러한 기적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전부터도 나는 병적으로 백일몽처럼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분리하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서 이 요소들이 각자의 신분대로 제자리에 있게 된다면 인간의 고통은 모두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정한 것은 정의로운 열망과 번민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갈 것이며, 정의로운 것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으며 외부의 죄악에 의해 불명예와 후회의 나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화합할

수 없는 요소들이 함께 결합되어 의식의 고통스런 자궁 속에서 양극단의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는 일은 인간의 저주이리라.”

지금까지 인간의 양면성의 세계를 주로 두 작가의 글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소위 소우주로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면 대우주는 어떠한가. 인간 밖의 우주 속에서도 두 세계가 상극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혼돈과 질서, 어둠과 밝음, 이 두 요소가 서로 공존하면서 상극하고 있다. 이것이 우주 생성의 기본과정이다. 신은 태초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했다. 이 사실을 성서는 창세기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우주 공간에는 카오스의 세계와 코스모스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전자의 세계가 혼돈과 질서없는 황량한 곳으로 어둠의 악령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후자 코스모스의 세계는 질서와 조화의 곳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이 두 세계가 각각 반대의 공간을 점유하면서도 한 우주 속에 공존한다. 이 원리는 대우주에 조용하는 소우주(인간)의 내면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상징하는 '카오스'의 세계를 초극하여 '코스모스'의 질서와 밝음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머시아 엘리야데의 '성(聖)과 속

(俗)'의 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세계에는 '성과 속'이라는 두 가지 존재양식이 있다고 설명하고 '속'의 초월은 성현(hierophany)을 통하여 속의 본래의 의미가 상실될 때 '성'이 출현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어떠한 자연적인 사물이나 속된 사물이라 해도 그것이 그 자연적인 그 것 자체의 의미를 초월하여 '어떤 첨가된 의미'를 지니게 될 때에 그 현상을 성현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기에 돌과 나무가 있다. 이 돌과 나무가 거룩한 것[聖]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이기를 그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돌이나 나무에 어떤 변화의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돌이나 나무는 여전히 돌이며 나무이지만, 성현이 일어나면 단순히 돌이나 나무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동시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가 첨가되는 다른 차원'은 특히 종교인에게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따라서 성현은 둘로 이분되어 있지만 '돌이면서 하나인' 곧 역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혼돈'을 초극하여 '질서와 밝음'의 세계로 지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믿는다. 이제 결론으

로 앞서 언급했던 마크 트웨인이 말년에 집필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 자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은 청년과 노인의 대화체 평론으로 작가의 인간 불신과 염세주의적인 사상이 짙게 스며있는 글이다. 그의 알려진 작품들 『톰소여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 그리고 『미시시피 강 위에서의 생활』 등에서 보여주던 다소의 풍자와 밝고 여유있는 재치와 유머의 세계에서, 말년의 인간 불신의 염세주의적 세계로의 귀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결국 '코스모스'의 세계로부터 '카오스' 세계로의 역행을 보게 된다. 참으로 인간이란 무엇일까? '카오스'의 상징일까? '코스모스'의 상징일까? 이 두 세계의 복합일까? ▶

---

원응순/연세대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외국어대학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예일 대학 교환교수, 경희대 교수협의회 회장, 학생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시집 『영토』와 『체험과 상상력』, 『20세기 영미시』(역주), 『소돔과 마돈나』(역서) 등이 있고, "John Donne의 시에 나타난 caritas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